

무안, 귀농·귀촌 우수지자체 선정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무안군이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Y-Farm Expo 2025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Y-Farm Expo’는 ‘농촌엔 활력을, 청년엔겐 미래’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합뉴스와 농업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164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참여했다.

박람회는 스마트 농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별·기관별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 ▲지자체 답례품을 소개하는 고향사랑기부관, ▲팜스테이와 도시농업을 홍보하는 농촌체험관 등이 운영돼 큰 관심을 끌었다.

무안군은 ▲1:1 맞춤형 귀농상담 서비스, ▲귀농 관심 단계부터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영농 기반 조성 등 귀농인을 위한 단계별 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성과를 인정받으며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무안=김상문 기자

영암,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30대 분량 사업비 확보... 최대 130만원 지원

영암군은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참여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충전시설을 말한다.

영암군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비 3900만원으로 30대 분량의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벽에 부착하는 충전기와 스탠드형 충전기는 최대 130만원, 이동형 충전기는 15만원이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영암군민인 개

인과 영암군의 기업·법인이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에 완속충전기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온라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설치계약 체결하고, 계약업체가 신청서를 영암군 환경기후과에 접수하면 설치비가 지급된다.

양동채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번 보급사업을 포함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신안, 우량 수산종자 방류 본격 시작

수산자원량 회복·어업인 소득증대 앞장

신안군은 30일 청정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자은면 둔장 지선에 고 소득형 패류인 백합 5만3000마(약 1톤)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합방류를 시작으로 5월 중순 흑산면 진리 1구 지선 외 18개 지선에 전복(18만2000마)과 해삼(19만2000마), 꼬막(5만2000마)을 방류하고, 5월 말부터 6월 초순까지 해삼 씨뿌림사업 일환으로 해삼 42만3000마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류할 백합은 서해안 갯벌에서 자연 성장한 2cm 이상의 건강한 종패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검

증된 종패로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께 방류한다.

신안군이 수산종자 방류를 전년도에 비해 15일 정도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 등으로 수온이 평년에 비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종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어업인들의 의견 등을 반영했다.

또한, 방류 품종은 품종별 서식환경 특성은 물론 방류 후 재 포획률, 관광객 체험 관광 활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방류효과가 클 것으로 신안군과 어업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신안=정경욱 기자

강진, 먹깨비로 ‘축제-경제’ 선순환 만들다

군민 5명 중 1명은 먹깨비 회원... 축제와 함께하는 상생 전략 통해

전라병영성 축제 연계 할인 이벤트, 주문 3856건 매출 1억 원 달성

강진군이 제28회 전라병영성 축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한 먹깨비 할인이벤트가 성공리에 종료됐다.

이벤트가 운영됐던 7일간 주문 수는 3,856건으로 총 매출액 1억 6백여만 원을 달성했다. 병영성 축제가 진행됐던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주문 수는 2,094건 매출액은 5천 8백여만 원을 기록해 전년 병영성 축제 기

간과 대비했을 때 주문수는 37%, 매출액은 50%가 증가했다.

지난 2022년 7월 전라남도 민관협력형 배달앱으로 만들어진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강진군에서만 발생한 매출액이 67억 원으로 도내 전체 매출액의 18%를 차지한다. 도내 굵직한 시군을 제치고 2024년 6월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강진군 내 먹깨비 앱 누적 회원 수는 7,132명으로,

인구 3만 2천 명을 웃도는 강진군민 5명 중 최소 1명은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사용 중임을 나타낸다.

강진군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 시책은 군 대표 축제와 행사기간동안 먹깨비 할인이벤트를 연계해 배달료나 외식 물가 부담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비자의 지갑을 부담 없이 열게 했던 묘수였다고 분석된다.

강진군은 축제가 개최되기 전부터 할인이벤트를 실시해 군민들의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높아진 매출만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수월되는 선순환 효과와 ‘축제-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결고리를 공공배달앱을 통해 만들어냈다.

먹깨비는 배달앱 중 최저 중개수수료(1.5%), 입점비와 광고비 무료 등의 혜택 등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고, 다양한 할인이벤트와 물가 부담 완화로 소비자가 착한 소비를 할 수 있어 모두에게 득이 되는 필수 앱이다.

/강진=김경선 기자

‘진도 꽃게 축제’ 성황... 관광객 3만2000여명 다녀가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진도군은 지난 25일부터 3일간 임회면 서망항 일원에서 열린 ‘제9회 진도 꽃게 축제’에 3만 2000여명이 다녀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꽃게 갑작 경매,

꽃게 낚시 체험, 꽃게 춤 경연, 꽃게 트로트 가요제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와 품바공연, 난타공연, 유명 가수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됐다.

특히 꽃게통발협회가 꽃게 가격을 기존 판매가보다 낮추고, 주변 식당에서도 꽃게 요리를 저렴하게 판매해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청정해역에서 갓 잡은 진도 꽃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면서 “향토 음식과 특산물 판매 등 직·간접적으로는 수십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2024년 한해 1115톤의 꽃게가 생산돼 202억 원의 위판고를 기록하는 등 전남 꽃게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꽃게 주산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진도=박재영 기자

목포수산물지원센터, 중기부 ‘특화역량 BI 지원사업’ 선정

지역 창업보육센터와 컨소시엄 구성, 스타트업 지원

목포수산물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거점형 특화역량 BI(Business Incubator) 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거점형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BI)와 창업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창업보육센터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최대 2년 사업으로, 급변도 사업비는 중소벤처

기업부 보조금 2억 원과 기관 대응자금 1억 3,3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3,300만 원 규모다.

지원센터는 대성창업투자주), (재)전남바이오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해양자원 활용 스타트업 육성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자원의 가치를 혁신해 K-Food, Beauty, Health 분야의 글로벌 창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및 은·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창업 교육, ▲기술 지원, ▲국내 IR (Investor

Relations) 지원,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영승 목포수산물지원센터장은 “해양수산 산업 관련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과 협업을 강화해 전남 지역의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창업보육센터 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김재욱 기자

해남군 ‘농어촌수도 해남’

자문단 구성·출범식 가져

해남군 농어촌수도 추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에 아이디어를 보태줄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25일 출범식을 가졌다.

자문단은 농업업과 문화관광, 보건복지환경, 인프라, 정책지원 등 5개 분야. 51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부서별 과제에 적합한 실무형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스마트생명 등 농업 분야와 인공지능(AI)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여 농어촌수도 해남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 한 해동안 군정 현안과 부서별 과제에 대한 서면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관내 현장 방문도 실시해 도출된 결과를 공유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군에서 발굴한 농어촌수도 전략의 부서별 중점과제에 대한 자문단 자문을 거친 후 5월 중 보고회를 개최해 농어촌수도 비전 수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계획이다.

해남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발전 전략인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자문과 자문위원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해남군 농어촌수도 전략 추진에 민관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